

협력자 성소후원회보



성바오로수도회 011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7길 20 전화: 02-944-8421(직통) 944-8300(대표)
팩스: 02-980-6275 협력자 마을: <http://www.paolo.or.kr> E-mail: angel@paolo.net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보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재난, 분쟁과 전쟁 등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죽음을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순간 때로는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의사도 부모와 형제, 친구도 소용이 없고 재물과 권력도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철저히 홀로 맞이해야 하고 지나가야 할 마지막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 그리고 자신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살고, 남의 시선에 이끌려 '무슨 척'하며 살거나, 자기를 소외시키고 돌보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 소외당한 '나'는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보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낯설거나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만남을 가져오는 희망의 순간입니다.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단절, 고독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느님만은 그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시편 23,4)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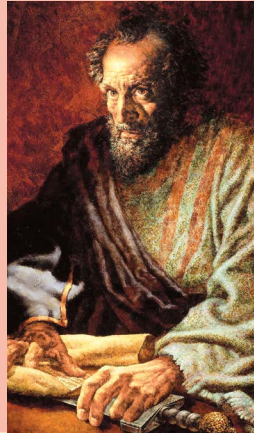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오늘도 온갖 어려움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요한 11,43)

이달의 지향

11월 위령 성월

천상 스승 예수님, 온 인류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소서. 교회를 들어 높이시고 교황을 도와주시며 성직자들과 당 신께 봉헌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주 예수님, 저희의 비참은 바로 당신의 비참이오니,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당신의 양 우리와 한 목자만이 있게 하소서.



- ✦ 천국에서 모두 함께 '바오로 가족'을 형성할 것이며, 죽음도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미리 살아갑시다. 하늘에서 복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상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 ✦ 바오로가족은 오늘, 성 바오로가 살아 있다면 행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살며 기도하고 자신을 성화하면서, 오늘의 성 바오로를 살고 재현할 것을 지향합니다.
- ✦ 새 인간의 귀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원형으로 본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께 봉헌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정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낚시다!
- ✦ 희생할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환경을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지 맙시다.
- ✦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델,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교사, 우리의 변호자인 성 바오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매일 아침, 날마다 당신 주위에 우리 모두를 두고, 우리에게 경건한 스승의 정신을 전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 ✦ 하느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고방식의 혼입니다.

바오로가족 기도서 기도문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1.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당신은 정의로우시기에 죄나 그 벌을 다 기워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을 위해 연옥을 마련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드리는 기도, 특히 미사의 희생제물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믿습니다. 제 안에 이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위령성월인 이번 달에는 주간 신심 기도 가운데 화요일 '연옥영혼을 위하여' 제 1번 기도문을 함께 바쳐보겠습니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영적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바오로가족 회원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헤어지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두 영원히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모든 남녀 회원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인내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제시한 모든 방향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삶과 기도가 그러하듯 무한한 가치를 지닌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도생활 완덕과 사도직 모두를 비추시길 빕니다. 고인들을 위해 드린 나의 위대한 사랑의 기도와 성 필립보,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카스타놀레의 사제회를 위해 내가 늘 바친 수많은 미사 전례대로 내 권리에 따라 나의 명복을 위한 미사를 기다립니다. 나는 모든 형제를 위해 모든 것을 완수했습니다. 내가 봉사한 형제들, 자매들과 협력자들과 친구들에게서도 의무나 애덕으로 미사와 명복을 비는 기도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스승이요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를 따르십시오. 언제나 스승이요 사도의 모후이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고 사랑하며 전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당신은총의 풍성한 부, 351-354)

창립자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4년 전인 1967년 8월 6일에 쓰고 1년 뒤인 1968년 3월 19일 재확인한 영적유언입니다. 이 글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고인들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바쳐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문은 바오로가족기도서 157면에 있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의 더 크신 영광을 위하여 제가 앞으로 행할 모든 선행 중에, 속죄의 가치가 있는 것과 죽은 후에 받을 기도를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로에 합쳐 당신께 드리며 연옥영혼들에게 양보하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두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에는 믿는 이들이 통공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정화교회와 이 세상에서 싸움 중에 있는 교회(하느님 나라를 위한 싸움),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승리교회 사이에 통공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복자품에 오르신 창립자 신부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옥영혼들을 위한 기도' 1번은 이 믿음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에 따른 벌을 다 기워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연옥을 마련해주셨다는 믿음, 또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연옥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특히 미사성제를 받아들인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야고보 알베리오네 지음 | 성바오로수도회 역음

기도
마
어
때
에
는
개
심
하
는
것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잠심 안에 머물니다.
잠심은 내 마음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거룩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잠심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리에 들 때까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습관적인 잠심은 올바른 지향을 갖게 합니다.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은
올바른 지향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실천합니다.

마음을 보살피는 것은
나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결국 눈물을 펄펄 쏟으며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여러 가지 갈망과
감정을 재인식합니다.

그는 말과 행동과 감정을 기록하게 합니다.
잠심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며,
당신의 영감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평온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작은 방이 있어
늘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고,
변화시키시기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사랑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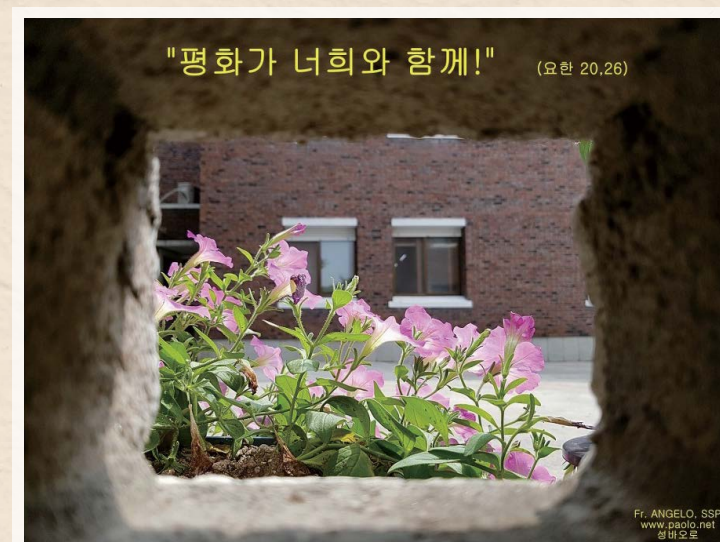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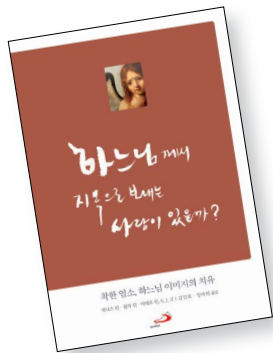
사진 : 서영필 안젤로 신부
출처 : 성바오로수도회

Fr. ANGELO, SSP
www.paolo.net
성바오로

추천합니다

하느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데니스 린 · 실라 린 · 마태오 린, S.J. 글 | 김인호 · 장미희 옮김 | 128×188 | 176쪽 | 값 11,000원



『하느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의 원제목은 ‘착한 염소’이다. 성경에서 양은 착한 이들로 상징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반해 염소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 속에서 벌을 받게 되는 존재로 묘사된다.(마태 25,31-34.41.46)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을 염소라고 생각한다. 양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라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염소라고만 하기에는 가끔은 착할 때도 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밀과 잡초, 양과 염소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모두 착한 염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이 아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하느님이 두려워 그분 앞에 엎드린다. 진정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순종하기 보다는 ‘너를 모른다’하며 외면당할까 두려워 교회법의 가장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이 책은 복음서의 기쁜 소식이 ‘지옥과 유향’으로 겁을 주는 나쁜 소식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히 번어 나온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 그자체이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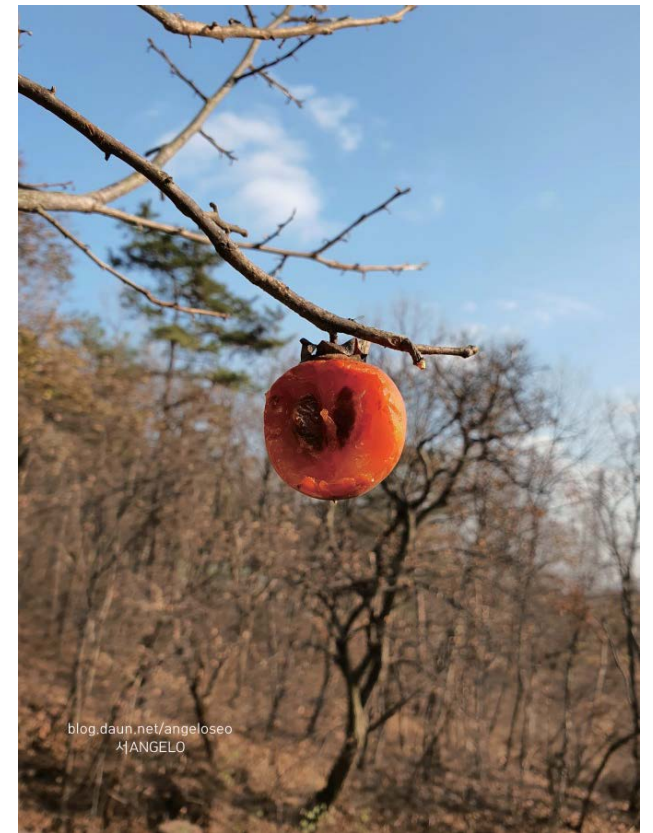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들의 피정 강의를 바탕으로 엮여 있다. 1부는 ‘하느님 이미지의 치유’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온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잡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부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1부에 언급된 주제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싣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정설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

“이 책이 제공하는 치유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경이로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다지 멀리, 깊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 번 더 경이로운 하느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프란치스코회 리처드 로-

■ 구입문의 : 통신판매 (02)945-2972 · www.paolo.kr

까치밥



서리 내린 뒤
까치밥 하나로
작은 새들 배불리 나눠 먹는다.
욕심이 없으니 아직도 많이 남았네!

사람이 문제야,
그러게 더 가지려는 사람의 욕심이 문제야!

사진·글 : 성바오로수도회 서영필 안젤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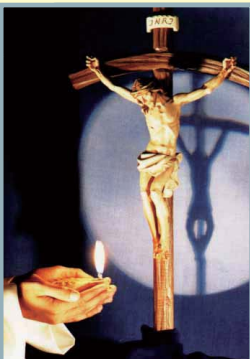
11월 협력자회 모임

서울모임	날짜	시간	장소	연락처
사도의모후	11월 6일 (첫토)	10시 30분	북카페 레벤 ♡ 논현분원	02-548-3623
디모테오	11월 6일 (첫토)	15시		
알베리오네	11월 8일 (월)	10시 30분	송중동본원	02-986-1361(대표) 02-944-8421(직통)
디도	11월 9일 (화)	10시 30분		
리디아	11월 10일 (수)	10시 30분		

지방모임	날짜	시간	장소	연락처
수원	11월 1일 (월)	10시	권선동성당	031-352-6830
대전	11월 2일 (화)	10시 30분	월평동성당	010-3427-7816(이 베레나)
광주	11월 16일 (화)	10시 30분	북동성당	062-526-3407
진주	11월 18일 (목)	10시	신안성당	055-745-5131
부산	11월 23일 (화)	11시	부산가톨릭센터 경당	010-8858-4807 (이 보니파시오 신부)
전주	11월 25일 (목)	11시	중앙성당	010-3769-2540 (유 소사 세실리아) 010-8996-5237(윤 데레사)
제주	11월 25일 (목)	14시	중앙성당	064-723-3855
대구	11월 26일 (금)	14시	대봉성당	010-8858-4807 (이 보니파시오 신부)
청주	12월까지 모임 없습니다!			043-221-2695

* 코로나19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 문자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송금계좌번호 ●●●

{국내} 우리은행 온라인 058-413974-13-001 (성바오로수도회)

국민은행 온라인 410137-01-003122 (성바오로수도회)

농협 온라인 171104-51-008021 (성바오로수도회)

- 지로로 회비를 보내실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의 이름과 본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체 후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